2021.10.18

리 포 트
글로벌 이슈

미국 주요 보험회사의 책임투자 동향

진옥희 연구원

요 약

미국 보험회사들은 책임투자를 이행하는 주요 기관 투자자로서 ESG 통합 전략,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을 토대로 지속가능테마 투자 전략, 임팩트 투자 전략 등을 투자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미국 보험회사들은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녹색채권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책임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미국 주요 보험회사의 책임투자 규모는 바이든 정부의 ESG 강화 정책기조 속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책임투자(혹은 지속가능투자)는 투자 후보군 선정과 포트폴리오 구성 및 운영 과정에서 지속가능성과 ESG(Environment, Social, Government;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기법을 의미함

- 책임투자 전략은 ESG 통합 전략, 포지티브/네거티브/규범기준 스크리닝 전략, 지속가능테마 투자 전략, 기업 관여 및 주주행동 투자 전략, 임팩트/지역사회 투자 전략 등 대략 7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1)]
  - ESG 통합 전략은 투자대상 분석 및 선정과정에서 ESG 관련 요소를 체계적이고 명시적으로 통합하는 전략임
  - 포지티브/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업종 평균에 비해 양호한 ESG 성과를 내는 기업 혹은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반대로 ESG 평가 수준이 저조한 기업이나 프로젝트를 배제하는 전략이며, 규범기준 스크리닝 전략은 ESG에 관한 국제기준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별하는 전략임
  - 지속가능테마 투자 전략은 재생 에너지, 저탄소, 지속가능 농업 등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테마주나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이며, 기업 관여 및 주주행동 투자 전략은 ESG 성과 등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 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전략임
  - 임팩트/지역사회 투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에 사회 및 환경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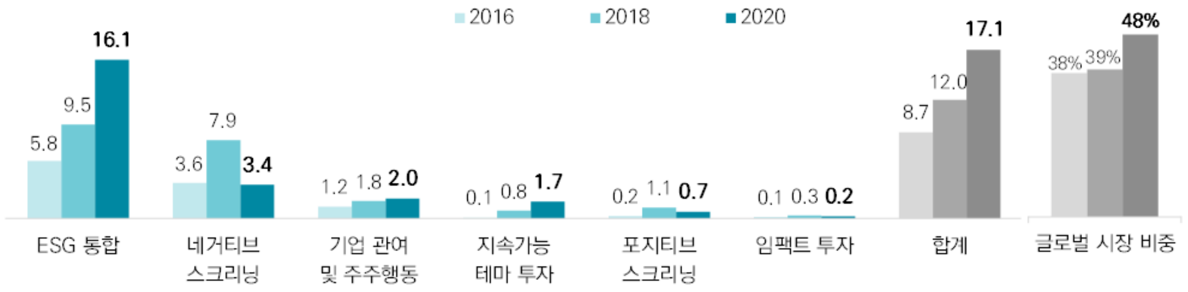
○ 미국은 2020년 기준 글로벌 책임투자자산 시장에서 48.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최근 ESG 통합 전략, 기업 관여 및 주주행동 투자 전략, 지속가능테마 투자 전략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2)]

- 2020년 ESG 통합 전략 투자 자산은 2016년에 비해 176%(약 5.8조 달러 → 16.1조 달러) 증가하였고, 기업 관여 및 주주행동 투자 자산은 66%(약 1.2조 달러 → 약 2조 달러), 지속가능테마 투자 자산은 2,212%(약 730억 달러 → 약 1.7조 달러) 증가함

1) 정유진(2021), 「2020 글로벌 자본시장의 책임투자 동향」, 『KCGS Report』,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김형석(2021), 『책임투자 스크리닝 전략의 적용 강도(intensity)에 따른 투자성과 비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2)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020),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20”

〈그림 1〉 미국의 책임투자 전략별 운용자산 규모

(단위: 1조 달러, %)



주: 미국의 규범 기반 스크리닝으로 운용된 자산은 2016~2020년 모두 0으로 집계되어 그림에서 제외함
출처: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Alliance(2018, 2020),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 2018, 2020"

○ 미국 보험회사들은 책임투자를 이행하는 주요 기관 투자자로서 ESG 통합 전략, 네거티브 스크리닝 투자 전략을 토대로 지속가능테마 투자 전략, 임팩트 투자 전략 등을 투자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3][4][5]

- 2020년 메트라이프의 책임투자 운용 규모는 약 750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푸르덴셜의 임팩트 투자 포트폴리오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음[6]
- 2020년 리버티 뮤츄얼(Liberty Mutual Insurance)의 대체 에너지자원에 대한 총투자는 태양에너지 자산유동화증권(solar-ABS) 투자 등으로 인해 전년(4.2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6억 달러를 기록함[7]
- 2020년 AIG는 대체 에너지자원에 32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12억 달러의 녹색채권을 매입함[8]

○ 미국 보험회사들은 자금조달 과정에서도 녹색채권을 활용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책임투자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자금조달) 2020년 메트라이프(MetLife)는 자회사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Life Insurance Company)이 발행한 녹색 자금조달계약담보어음(Green Funding Agreement-Backed Note)으로 약 7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였으며[9], 푸르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은 2020년 3월 녹색채권을 발행하여 약 5억 달러를 조달함[10]
- (투자상품) 뉴욕라이프는 자회사 NYLIM(New York Life Investment Management)와 투자 부티크 Candriam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투자상품을 제공함[11]
  - 네거티브 스크리닝을 기초로 포지티브 스크리닝, 임팩트 투자 순으로 투자상품의 범위가 확대됨[12]

3) New York Life(2020),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 2019-2020", p. 26
4) Prudential Financial Inc.(2021. 3), "2021 Prudential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Summary Report"
5) MetLife(2021), "2020 Sustainability Report"
6) Prudential Financial Inc.(2020. 2. 28), "Prudential's impact investment portfolio hits $1 billion milestone"
7) Liberty Mutual Insurance(2021), "2020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view"
8) AIG(2021. 6), "2020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Report"
9) Sustainalytics(2021. 6. 22), "Annual Review: MetLife, Inc."
10) Prudential Financial Inc.(2021. 3), "Green Bond Report"
11) New York Life Investments 홈페이지(https://www.newyorklifeinvestments.com/investment-strategies/esg)

○ 미국 주요 보험회사의 책임투자 규모는 바이든 정부의 ESG 강화 정책기조 속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5월 바이든 행정부는 노동부 장관에게 트럼프 정부에서 퇴직연금 투자 결정 시 ESG 요소를 금지할 수 있었던 규정에 대해 중단, 개정 또는 철회 고려를 지시하였음[13)]
- 2021년 6월 미 하원의 ESG 공시 의무화 법안[14)] 통과에 이어[15)]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 말 기후변화 위험과 ESG 공시 사항에 대한 규칙을 제안할 예정임[16)]
- 메트라이프는 2030년까지 신규 임팩트 투자에 5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 25%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 배분할 것으로 밝혔으며, 푸르덴셜은 2025년까지 임팩트 투자 포트폴리오 중 10%를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기업 및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임

12) 가령, 임팩트 투자상품에 해당하는 IQ Healthy Hearts ETF(HART)는 IQ Candriam Healthy Hearts Index와 연동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첨단 치료법을 제공하는 회사들에 투자하는 펀드임
13) The National Law Review(2021. 5. 25), “President Biden issues Federal Direction on disclosure of climate-related financial risk”
14)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 of 2021; HR 1187
15) The National Law Review(2021. 6. 23), “House passes Bill requiring SEC to define mandatory ESG metrics”
16) SEC(2021. 7. 28), “Prepared remarks before th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climate and global financial markets” webinar”